KB증권

FIRST TO THE MARKET

2025년 5월 9일

반도체 / 전기전자 Analyst 김동원
jeff.kim@kbfg.com
AI / 로봇 Analyst 이의진
ujlee@kbfg.com
연구원 도상우
sangwoo.do@kbfg.com

전기전자

상반기 선행 수요의 그림자

더 많은 리포트 보기

2025년 글로벌 TV 출하량 -0.7% YoY

— 2025년 전 세계 TV 출하량은 전년대비 -0.7% 감소한 1.96억대로 예상되어 2억대를 하회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90일 관세 유예 기간을 이용해 재고를 비축하려는 선행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하반기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1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은 전통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6.1% 증가세를 기록했다. 따라서 올해 상, 하반기 글로벌 TV 출하 비중은 각각 48%, 52%로 예년과 달리 상, 하반기 출하 비중이 유사할 전망이다 (Trendforce,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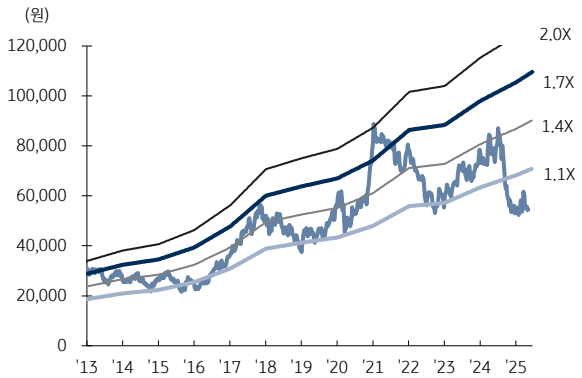
올 하반기 TV 출하량 감소할 전망

— 2분기 현재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TV 세트 업체들은 관세 영향 회피를 위한 선행 생산으로 TV 재고가 평균 3주 이상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유통 채널의 TV 재고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 출하량은 전년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BOE, CSOT 등 중국 TV 패널 업체들의 주문량도 2분기 말부터 감소세에 진입하며 하반기 TV 패널 가동률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TV, 점유율 확대 전략 선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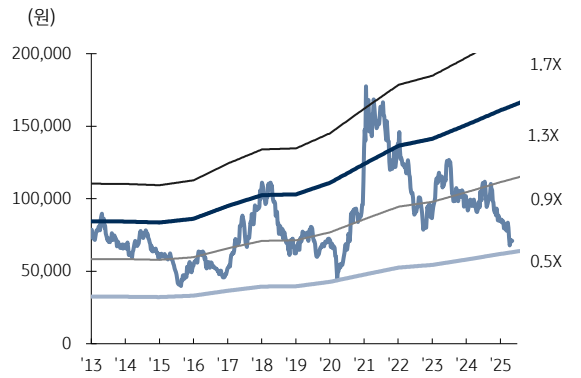
— 2024년 중국 TV 업체 (TCL, 하이센스, 샤오미)들의 합산 점유율은 31.3%로 한국 TV 업체 (삼성전자, LG전자) 점유율 28.4%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는 ① 중국 TV 업체들이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 패널을 자국 중심의 공급망 확보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했고, ②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중국 중심의 미니 LED TV 출하 확대 (2025E 미니 LED TV 출하량, +50% YoY)에 따른 점유율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도 동시에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글로벌 TV 1위인 삼성전자는 점유율 확대와 중국 TV 업체 견제를 위해 미니 LED 기반의 QNED 및 QLED TV 등 TV 출하량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삼성전자 12M forward P/B 0.85배



자료: 삼성전자, KB증권 추정

그림 2. LG전자 12M forward P/B 0.56배



자료: LG전자, KB증권 추정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삼성전자]의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위탁 증권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